

**열왕기하 10. 아합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왕하 10 장 1 - 36 절)**

**들어가기**

본 장은 ‘요람’ 왕과 ‘이세벨’ 여왕을 죽인 후 북이스라엘의 제 10 대 왕으로 등극한 ‘예후’가 당시 사마리아에 남아 있던 ‘아합’의 아들들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몰살시키며 북이스라엘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은 오래 전 ‘엘리아’를 통해 선포된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아합’의 아들들을 다 처형한 ‘예후’ (1-11 절)**

- 1) ‘요람’ 왕과 ‘이세벨’ 여왕을 죽인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던 선생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1-3 절)
  - 당시 ‘사마리아’에는 ‘아합’의 아들 70 명 + 저들을 가르치던 선생들(후견인) + ‘아합’을 따르던 많은 신하들 + 병기 + 말 + 견고한 성이 있었음!!
    - 이것은 분명 ‘아람’과의 전쟁 중 ‘요람’ 왕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에 왕이 된 ‘예후’에게 큰 위협과 걸림돌이 되었을 것!
  - 이때 ‘예후’는 ‘사마리아’의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가르치던 선생들에게 편지를 보냄!
    - 3 절 주목! ->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 곧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고 자신과 싸울 준비를 하라고 편지한 것!
  - 그럼 왜 ‘예후’는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
- 2) 이 같은 ‘예후’의 편지를 받은 장로들과 선생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4-5 절)
  - ①. ‘예후’를 심히 두려워함!
    - > ‘두 왕 곧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을 죽인 ‘예후’를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하면서 두려워함!!
  - ②. 그리하여 자신들은 이제부터 ‘예후’의 종이라고 자칭함!
  - ③. 따라서 ‘아합’의 아들들 중 어느 누구도 왕으로 삼지 않을 것이고, ‘예후’가 좋다고 말하는 대로, 무조건 ‘예후’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결정함!
- 3) 장로들과 선생들의 답을 들은 ‘예후’는 즉시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취한 후, 자신을 맞이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6-7 절)
  - 그러자 ‘예후’의 명대로 저들은 즉시 ‘아합’의 아들들 70 명의 머리를 잘라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예후가 있는 ‘이스르엘’로 보냄!!

4) 왕자들의 머리를 전해 받은 ‘예후’는 그것을 ‘이스라엘’ 성문에 두 무더기로 쌓고,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말씀하신 ‘아합’의 집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였습니다. (8-10 절)

▪ 특별히 9-10 절의 ‘예후’의 선언을 주목!

- ①. ‘너희는 의롭도다...’ -> 백성들은 이번 반란과 아무런 상관도 없음을 선언!
- ②.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었거니와...’ -> 자신이 ‘요람’ 왕을 배반하고 반역했음을 선언!
- ③. ‘이 여러 사람(아합의 아들들)을 죽인 자는 누구냐?’ -> 곧 ‘아합’을 따르던 자들이 한 일!
- ④.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이 있음!!
- ⑤. 무엇을?

-> 10 절!!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 곧 오래 전 ‘아합’의 집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며 선포한 것!

5) 이 후 ‘예후’는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 성에 살던 모든 사람들과 귀족들, 그에게 신뢰받는 자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처형하였습니다. (11 절)

## 2. 유다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처형한 ‘예후’ (12-14 절)

1) ‘이스라엘’을 떠나 ‘사마리아’로 향하던 ‘예후’는 목자가 양털 깎던 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 그런데 그곳에 유다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도 머무르고 있었음! (13 절)

- 우선 본문은 ‘아하시야의 형제들’로 표현되었지만, 원어적으로 ‘아하시야의 친족들’이란 말로, 정확히 말하면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이 맞는 표현. (대하 22:8)
- 참고로 ‘아하시야’는 막내 아들로 그가 왕이 될 때 형들은 이미 다 죽고 없었음.

▪ 그럼 ‘아하시야’의 친족들은 왜 그곳에 있었나요?

- ‘요람’ 왕의 왕자들과 태후 곧 ‘이세벨’의 아들들을 문안하려고 내려가던 중!
- 아마도 저들은 아직 ‘예후’의 반란 소식을 듣지 못했던 듯!!

2) ‘예후’는 저들이 ‘아하시야’의 친족이란 사실을 확인하자 즉시 잡아 처형하였습니다.

▪ 당시 양털 깎던 집에서 ‘예후’에게 잡혀 죽은 ‘아하시야’의 친족들은 총 42 명!

▪ 그럼 당시 ‘예후’는 왜 저들을 잡아 죽였을까요?

-  
-

## 3. ‘여호나답’과 함께 사마리아 성의 남은 ‘아합’ 사람들을 처형한 ‘예후’ (15-17 절)

1)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예후’를 맞이하였습니다. (15 절)

-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예레미야 35 장 8-19 절)
    - 우선 여기서 ‘아들’이란 말은 ‘후손’이란 의미!
    - ‘레갑’의 후손들은 ‘겐’ 족속에 속한 사람들로 농경생활이나 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사막과 광야에서 천막생활을 하며 최대한 단순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
    - 참고로 저들은 밭이나 과수원을 만들지 않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집을 짓지 않았음! -> 이를 통해 탐욕을 경계하고, 향락과 무질서를 피해 더욱 더 경건생활에 집중!!
    -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밭 먹듯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레갑’ 자손들을 칭찬하며 저들은 바벨론의 심판에서 제외 될 것이라고 선언함!!
  - 그런데 이 같은 경건주의적 삶을 살았던 ‘레갑’ 자손들 중 하나인 ‘여호나답’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예후’를 마중 나왔다는 것!
    - 이는 곧 ‘레갑’ 자손들이 ‘예후’의 반란을 지지하며, 그를 통한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독촉하는 의미로 볼 수 있음!!
    - 이때 ‘예후’는 자신의 마음도 ‘여호나답’과 ‘레갑’ 후손들의 마음과 같다고 고백한 후, 그를 자신의 병거에 태운 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지 확인해 보라고 명함!!
- 2) ‘여호나답’과 함께 사마리아에 도착한 ‘예후’는 ‘이스르엘’ 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성에 남아 있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며 저들을 진멸시켰습니다.

**4. ‘바알’을 섬기던 모든 자들을 처형하며 종교개혁을 감행한 ‘예후’ (18-31 절)**

- 1) ‘예후’가 ‘바알’을 섬기던 모든 자들을 처형하기 위해 세운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18-27 절)
- ①. 자신도 ‘아합’처럼, 아니 ‘아합’보다 더 크게 ‘바알’을 섬기겠다고 공표함!
  - ②.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여는 바알을 위한 제사에 참여하라고 명함!  
-> 만일 이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바알의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다 죽일 것이라고 선언!
  - ③. 그 후 제사에 참여한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예복을 입혀 쉽게 구분되게 함!.
  - ④.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제사를 드리는 행사장 밖으로 내보내도록 명령함.
  - 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80 명의 근위병들에게 한 사람도 행사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명함!
  - ⑥. 제사가 끝나자마자 바알을 섬기던 모든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바알의 신당으로 가 목상들을 불사르고, 신당을 헐어 변소를 만들게 함!
- 참고로 이런 ‘예후’의 계획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
- 2)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벧엘’과 ‘단’에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가 행해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 참고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벰엘’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나요?  
-  
-
- 비록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의 집을 진멸하고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우상을 쫓아 내며 나람 개혁을 시도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며 범죄하고 말았음!!

3) 그런데 하나님은 ‘예후’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합’의 집을 심판한 것을 인정하시며, 북이스라엘의 왕위가 ‘예후’의 자손들 4 대까지 이어질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30 절)

-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아하스’(13:1), ‘요아스’(13:9), ‘여로보암 2 세’(14:23), ‘스가랴’(15:8)까지 100 년 동안 ‘예후’의 후손들이 왕이 됨으로써 성취됨.
- 참고로 한 학자의 코멘트..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베푸신 축복이라고 쉽게 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이것은 그를 불신임하신 하나님의 징표라고도 말할 수 있다!’

### 5. 예후의 죽음 (32-36 절)

1) ‘예후’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부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땅을 찢으시며 징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32-33 절)

- 이때부터 아람 왕 ‘하사엘’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공격하기 시작함!
- 그 결과 요단 동쪽의 길르앗 땅들, 곧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아람에게 빼앗기게 됨!  
• 이것은 ‘예후’의 죄악 +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2) ‘예후’는 28 년간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다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34-36 절)

3) 28 년간의 ‘예후’의 삶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  
-

6. 오늘 내용을 통해 개인적으로 깨달거나 결심한 내용들이 있다면?

### 7. 중보기도 나눔